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11.(수) 11:00
(지면) 2026. 11. 12.(목) 조간
배포 2026. 11. 11.(수) 06:00

해수부,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추진을 위한 노·사 간담회 개최한다

-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항만공사 자회사 통합 추진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목) 해양수산부 별관 회의실에서 항만공사 5개 자회사*의 통합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자회사의 기관장 및 노동조합·직원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관리㈜, 울산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

지난 9월 3일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따라 모회사인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게 되면서 항만공사 산하 5개 자회사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8일, 모회사인 항만공사의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4개 항만공사 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개최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5개 자회사 기관장 및 노동조합·직원 대표가 참석하여 자회사 통합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하고 각 기관의 건의 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모회사인 항만공사의 통합 방향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자회사 통합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성공적인 자회사 통합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책임자	과 장	한지웅 (051-773-5790)
		담당자	사무관	변지훈 (051-773-5795)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한울 (051-773-5750)
		담당자	서기관	김행숙 (051-773-575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